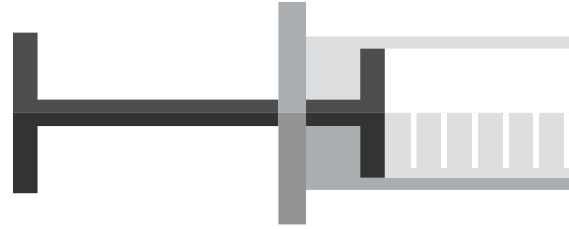


C형 간염이 뭐지?

1964년 이전 출생자는 혈액 검사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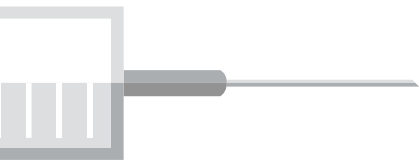
국내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자가 1만 명을 넘었지만 매년 C형 간염 바이러스 감염자도 만만치 않습니다. 세계적으로 C형 간염 등 바이러스성 간염으로 사망하는 사람이 140만 명에 이릅니다. 이는 HIV(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나 말라리아로 사망하는 사람보다 많은 수치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세계보건기구(WHO)는 2030년까지 바이러스성 간염을 90% 줄이겠다고 선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세계가 C형 간염과 전쟁을 선포한 이유는 간암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 간암 발병 원인의 25%를 C형 간염이 차지합니다. 국내에서는 간암 원인 중 B형 간염이 60%를 차지해 1위이고, C형 간염이 12%로 2위입니다. C형 간염은 감염자 수에서 B형 간염보다 적지만 간암으로 진행할 가능성은 훨씬 높습니다.

B형 간염보다 만성화를 매우 높아

C형 간염은 바이러스 감염병입니다. C형 간염을 일으키는 원인 바이러스는 플라비비리데(Flaviviridae)와 RNA 바이러스입니다. 이런 바이러스는 혈액 내로 침입한 후 주로 간세포에 서식합니다. 간세포를 감염시킨 바이러스를 잡기 위해 우리 몸의 면역세포가 출동합니다. 면역세포와 바이러스가 싸우는 과정에서 간세포가 파괴됩니다. 그래서 간에 염증이 생기는데 이를 C형 간염이라고 부릅니다.

C형 간염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한번 들어오면 자연적으로 낫는 경우는 1% 미만으로 매우 드뭅니다. 80% 정도가 만성화됩니다. B형 간염이 만성화되는 비율(1~10%)에 비하면 매우 높습니다. 만성 C형 간염이란 6개월 이상 간에 염증이 지속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국립암센터 자



료를 보면 만성 C형 간염 중 20~30%는 간경변증(간경화)으로 진행되며 또 그 가운데 2~4%는 간암이 됩니다.

대부분 혈액을 통해 감염

그럼 C형 간염은 어떻게 감염될까요? 대부분 혈액을 통해 감염됩니다. 대한간암학회의 조사 결과를 보면 가장 큰 감염원은 주사약물 남용으로 나타났습니다. 2013년 C형 간염의 48.4%가 주사약물 남용으로 감염됐습니다. 2008년 57%보다 다소 줄었습니다. 한 전문의는 “마약류를 투입하는 주사기를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사용하거나 재사용하면서 감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위생적인 방법으로 침술을 받거나 주사기 재사용, 피어싱, 문신 등을 하는 과정에서도 감염됩니다”라고 설명합니다.

따라서 C형 간염 예방 1순위는 주사기를 반드시 1회용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감염자와 성관계를 할 때는 콘돔을 사용하고 침을 맞거나 문신과 피어싱을 할 때는 반드시 소독된 도구를 사용해야 합니다. 그 외에 면도기, 칫솔, 손톱깎이 등도 혈액을 오염시킬 수 있는 물건이므로 C형 간염 전파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C형 간염 환자가 가정에서 있다면 칫솔, 면도기, 손톱깎이를 따로 사용해야 합니다.

C형 간염 고위험군은 다음과 같습니다. 장기 공여자의 C형 간염 검사 전에 혈액이나 혈액성분 제제를 받거나 장기 이식을 받은 사람, 정맥 주사나 약물 남용자 혹은 그런 과거력이 있는 사람, 투석 환자, HIV 감염자, 혈우병 환자, C형 간염자와 성적 접촉자, C형 간염 산모에게서 태어난 아이, C형 간염이 양성인 혈액에 오염된 기구에 찔리거나 점막이 노출된 보건의료 종사자, 비위생적인 침술·문신·피어싱 등에 노출된 사람 등입니다.

들어는 봤지만 잘 몰라

사실 B형 간염은 많이 들어 봤어도 C형 간염을 잘 아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대한간암학회가 2009년 건강검진과 암검진을 받은 사람 1만 7,957명을 대상으로 파악했는데 약 5%는 B형 간염이었고 약 1%가 C형 간염이었습니다. 자신이 간염에 걸린 사실을 몰랐던 사람이 B형 간염 환자 중에서는 25.8%였고 C형 간염 환자 중에서는 65.1%였습니다. C형 간염 환자이면서도 자신이 C형 간염에 걸린지도 모르는 사람이 10명 중 6명 이상인 것입니다.



대한간암학회는 10년 후인 2019년 일반 성인 1,003명을 대상으로 C형 간염 인지도 및 검사 여부를 조사했습니다. C형 간염을 들어본 사람은 56%였습니다. 그런데 C형 간염 검사를 받은 적이 있다는 사람은 9%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어디선가 C형 간염을 들어보긴 했지만 C형 간염 검사의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는 못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C형 간염 발견을 위한 혈액 검사 필요

C형 간염은 증상이 없다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급성 C형 간염의 경우에도 70~80%는 증상이 없습니다. 바이러스에 감염되고 6개월 내에 감기몸살, 권태, 메스꺼움, 구역질, 식욕부진, 상복부 불쾌감 같은 증상이 서서히 나타납니다. 만성 C형 간염 환자의 60~80%도 증상을 못 느낍니다.

증상이 없으니 발견도 늦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를 보면 2013~2017년 C형 간염으로 생긴 간암을 진단받은 사람 3,236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는데 83% 이상이 간암 진단 전에 C형 간염 치료를 받은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5명 중 4명은 간암으로 진행된 후에나 C형 간염을 발견한 셈입니다.

늦게 발견할수록 생존율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대한간암학회는 2008~2014년 C형 간염으로 생긴 간암을 진단받은 사람 1,020명을 분석했습니다. C형 간염이 원인인 간암을 1기에 발견한 비율은 2008년 18%에서 2014년 19%로 변화가 거의 없었습니다. 4기에 발견한 비율은 같은 기간 14%에서 20%로 증가했습니다. 1기 때 발견해 치료하면 5년 생존율이 54.7%이

고 1년 정도 생존할 확률은 94.1%입니다. 4기 때 발견해 치료하면 5년 생존율은 6.1%이고 1년 생존 확률도 29.4%에 불과합니다.

이처럼 간암 진단 당시까지 간염 치료를 시작하지 않은 것을 ‘뒤늦은 진단(late presentation)’이라고 합니다. 대한간암학회는 2월 2일 우리나라에서 진단되는 C형 간염과 관련이 있는 간암의 상당수가 뒤늦은 시기에 진단받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C형 간염 환자의 출생연도를 보면 95% 이상이 1964년 이전 출생자입니다. 나이가 가장 어린 사람이 1972년생이었습니다.

신동현 교수(삼성서울병원 소화기내과)는 “증상이 거의 없으므로 C형 간염이 간암으로 진행되기 전에 검사로 찾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1964년 이전 출생자는 C형 간염 검사를 한번은 받기를 권고합니다. 혈액검사로 자신이 C형 간염 환자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 건강검진에서 혈액검사를 하지만 C형 간염 검사는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라고 설명합니다.

의학계에서는 C형 간염 검사를 국가건강검진에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도영 교수(세브란스병원 소화기내과)는 지난해 부산에서 열린 ‘The liver week 2019’ 심포지엄에서 “간암·간경변의 주요인으로 C형 간염이 꼽힙니다. 정부는 국가건강검진에 생애 2차례(40세와 65세) C형 간염 선별검사를 포함해야 합니다”라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치료약 복용으로 95% 이상 완치

혈액검사를 통한 조기 발견이 중요한 이유는 아직 백신이 개발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래

A·B·C형 간염의 원인과 예방법

	A형 간염	B형 간염	C형 간염
원인	 오염된 음식 또는 물	 감염된 혈액	 감염된 혈액
예방	 끓인 물과 익힌 음식 섭취 개인위생 관리	 출산 전 B형 간염 검사, 주사기 재사용 금지 등	 혈액 검사로 조기 발견, 주사기 재사용 금지 등
백신	○	○	×

전부터 의학자들은 C형 간염 백신을 개발하려고 무던히 노력했습니다만 모두 실패했습니다. 유전자형이 매우 다양하고 변이가 쉽게 일어나기 때문에 백신 개발이 쉽지 않은 것입니다. 과거 동물실험에서 백신 효과가 나타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동물 면역계는 종종 C형 간염 바이러스를 제거하기 때문에 그 효과가 백신 때문인지 여부를 확인할 길이 없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치료제는 개발돼 있습니다. 과거엔 주사제와 경구용 치료제를 6개월 내지 1년 동안 투여해도 완치율이 50%에 머물렀습니다. 치료 환자의 80~90%는 발열, 오한, 탈모 등 약물 부작용도 경험했습니다. 2015년 이후엔 경구용 약을 8~12주 복용하면 90% 완치됩니다. 부작용도 두통, 피로감 등으로 경미합니다. 대한간암학회에 발표된 2018~2019년 관련 연

구 결과를 종합하면 완치율은 95% 이상입니다. 최고 99%까지 치료 효과가 나타난 경우도 있습니다.

C형 간염을 치료하면 간암 위험이 감소합니다. 2015~2019년 발표된 국내 연구를 종합하면 C형 간염 치료를 받을 경우 간암 위험이 75~80% 감소했습니다. C형 간염을 치료하지 않으면 간암 위험은 3배 이상 높아집니다.

대한간암학회는 “미리 C형 간염 감염 여부를 확인하고 감염된 경우엔 적극적으로 치료하면 간암 발생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라고 강조합니다. 단백질이 많은 음식을 섭취하고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면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절대적인 금주가 요구됩니다.

글 / 노진섭 시사저널 의학전문기자입니다. no@sisajournal.com

